“새 패러다임으로 남북관계 전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월 6일 기자간담회

통일의식 확산 등 사업 발표
3월 남북 평화·화합 기원법회
108평화통일도량 협약 목표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남북불교 교류는 급변하는 정세로 예측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없는 길을 만들어 가고 없어진 길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엄혹한 이 시기 민추본의 사명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상황을 전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사진)이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효 스님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민족적 특수관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30년간 교류 협력이 지속됐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분단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교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뒤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추본은 대북 인식 전환과 통일의식 확산에 주력한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대화 재개 발원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기원법회는 3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쟁 반대 평화통일기원 다라니기도, 전쟁 희생자 추모 위령 공연 등을 진행한다.



태효 스님은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불자들의 대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불교계 통일의식 확산에 매진하겠다”며 “기원법회를 통해 전쟁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남북이 대화로써 평화로 나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걷기’를 활용한 평화통일 의식 제고에도 나선다. 남북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이나 동서 횡단 트레킹 코스 등에서 명상프로그램과 접목한 걷기 행사를 열고 남북 화해를 기원한다. 이는 접경지역 지자체와도 연계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며 연속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및 현장 순례, 월례 강좌 등 민추본 정기 교육과 남불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을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미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불교계 대북 통일역량도 강화한다.

남북관계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교류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북한 불교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기술 내용과 국내 현황을 사전 조사할 계획이며, 통일 관련 제단체와 연대로 대북 정세에 적극 대응,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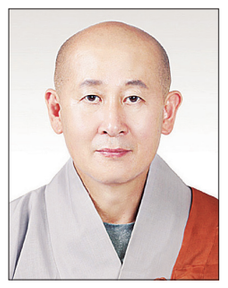
이와 함께 남북교류 및 통일사업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직 활성화에도 힘 쏟는다. 2024년 중으로 평화통일도량 108개 사찰과 협약을 완료하고 기금 확보와 활동 영역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도량은 2021년 3월 제1호 협약식을 시작으로 현재 76개 도량과 협약을 맺은 상태로, 향후 지역 사찰들과 적극 협의해 조속히 늘려갈 예정이다.

불자들의 참여 확산을 위한 신규 지역본부 출범도 추진한다. 임기가 만료된 강원지역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을 재임명하는 것은 물론 제주본부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태효 스님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추본은 종단의 남북 관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새기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염불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교구발전 진력”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당선
총무원장 임명장 수여식 거쳐
3월 중순부터 4년 임기 시작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지현 스님〈사진〉이 당선 후 교구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현 스님은 2월 6일 쌍계사에서 열린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후보에 당선됐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12명 중 65명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총무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단독 입후보로 경선 없이 당선된 지현 스님은 산중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가 주석한 방장실을 추모관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방장) 큰스님께서 지내셨던 방장실 내부 모습은 유지한 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추모관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박물관과 설선당, 정묵당 등 여러 불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현 주지스님(영담 스님)을 회주로 모셔서 기존에 추진해온 불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쌍계사 발전을 위해 화합대중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없이 교구도 발전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현 스님은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수계하고 봉암사 수선안거 이래 전문선원 총 22안거를 성만했다. 진주 보광사 주지를 지내고 쌍계사 교무·포교·사회·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천 평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10명 신규 위촉

2월 5일 위촉식…임기 3년
대승불교 · 선불교 등 분야에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새로 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들.

승가교육 발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가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불기2568(2024)년도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진행했다. 교육원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학위논문 및 과정, 연구실정, 교육연구 활동 경력, 연구계획, 교육연구자로서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규 교육아사리 10명을 선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에 법장 스님(위덕대 철학박사, 비구니), 수완 스님(금강대 박사, 비구니), 혜향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선불교 분야에 돈각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무각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응용불교 분야에 윤성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현각 스님(미국 서래대 철학박사, 비구니), 선효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 비구니), 한문불전 분야에 대연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성주 스님(동국대 박사수료)이다.

임기가 만료된 교육아사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대승불교 분야의 경완 스님(고려대 중어중문 박사, 비구니), 법지 스님(중국 남경대 박사), 향산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문학박사), 정천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금강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혜인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비구니), 초연 스님(경북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초기불교 분야의 현암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선불교 분야의 탄공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정도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등 10명을 재위촉했다. 김내영 기자

1급 사찰문화해설사 배출 ‘활동 기대’

대불청 심화과정 30명 수료
전문해설 기술 습득에 방점
2급 합격자만 총 800여 명
1급부터 활동비 지원 계획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과 장정화 대불청 회장, 사찰문화해설사 1급 수료생들.

지난 2020년부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1급 합격자를 처음으로 배출하며 올바른 불교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2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 사찰문화해설사 심화과정(1급)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과 강원,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1급 교육과정에는 총 48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30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급 심화과정은 일반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사찰 현장에서의 대응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해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불청은 양성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800여 명에 달하는 2급 자격 사찰문화해설사를 배출한 바 있다.

장정화 중앙회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사찰문화해설사 자격시험이 집행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얼마 전 이사회에서 사찰문화해설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대불청 차원에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하고자 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는 자체적인 심사위원이 아닌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전문적인 교수님을 모셔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불청의 사찰문화해설사는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나 향토문화해설사들이 사찰을 안내하며 잘못된 불교 지식을 전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껴 기획한 교육사업이다. 대부분의 해설사들이 종교 공간임에도 사찰 역사나 문화재에 대한 지식만 설명하거나 구전되는 설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사례도 많았다.

수료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문화재 관련 인식수준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한다”며 “타종교인이 사찰 문화에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노력과 인연이 소중하다”고 축사했다.

수료식에선 정동수 씨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인 자원봉사상을, 최고득점자인 김병도 씨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상을 수상했다. 대불청은 1급 자격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